

종합토론

동화사 담선대법회 회향

오늘의 간화선 희망적인가?



간화선 수행을 놓고 11주간 펼쳐졌던 대구 동화사 담선대법회가 11월13일 막을 내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간화선과 제3수행법과의 차이 등 간화선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종합토론 논사들인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성본(동국대 선학과 교수), 월암 스님(철불암 주지).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4>



아미타 염불선

아미타 염불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하고 수행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리불아, 너의 뜻에는 어떠한가? 저 부처님을 무슨 이유로 아미타라 부르는가?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 없어서 사방의 세계를 비추어도 막힘이 없느니라. 이러한 때문에 아미타라 부르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수명 및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도 한량이 없고 가없는 아승지겁인 까닭에 아미타라 이름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원효는 <아미타경소>에서 '이 <경>은 곧바로 삼계를 뛰어넘는 두 가지 청정(淸淨)으로 그 근본을 삼고, 모든 중생으로 하

량壽命)과 무량광명(無量光明)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은 무량수명과 무량광명의 덕성(德性)을 소유한 부처입니다. 정토는 자비광명의 덕상(德相)입니다. 정토는 일심의 바다입니다. 정토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성취하는 세계가 아니라, 아미타불이 성취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미타불이 이미 성취한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본원력(本願力)에 힘입고 자비광명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염불수행의 법은 아미타입니다. 아미타는 관찰할 법입니다. 여기에 의보(依報)인 자연과 정보(正報)인 생명이 있습니다. 염불수행의 깊은 뜻은 아미타를 관찰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과

염불수행의 깊은 뜻 '아미타 관찰' 자연과 생명, 지혜로운 눈으로 보기

여유 위없는 도에서 능히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지향점을 삼는다. 어떤 것을 이룰하여 두 가지 청정이라 하는가? 저 <경>에서 말하기를 '이 청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기세간청정(器世間淸淨)이요, 둘째는 중생세간청정(衆生世間淸淨)이다' 하고 내지 널리 설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미타(阿彌陀: Amita)는 참다운 덕(德)을 머금고 있음을 세운 것으로 만경에도 다함이 없는 이릅니다. <경>을 설하신 주인과 말씀하신 법(法)을 함께 들어 제목에 나타냈기 때문에 <불설아미타경>이라고 하였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해설하자면,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이 원행(願行)을 일으켜 청정토로 장엄한 국토입니다. 정토는 청정이 근본입니다. 의보(依報) 자연과 정보(正報) 생명이 청정 광명으로 빛나는 아미타의 세계입니다. 아미타는 무량수명(無

量壽命)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염불은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이며 '유념유상(有念有相)의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토문의 염불수행은 청명염불(稱名念佛)과 관상염불(觀相念佛)로 구별합니다. 청명은 '나무 아미타불' 명호를 부름으로써 마음을 성취하는 방편이며, 관상은 지관(止觀)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염불선입니다. 아미타 염불선은 바로 법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진여문과 생명론 가운데 생명론에 해당하는 자비광명 곧 자연과 생명의 청정광명을 관찰합니다. 아미타와 관찰할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타→청정(본체)→번뇌없음, 무아, 무량수→광명(작용)→의보→자연의 청정광명→보신→별상→정보→생명의 청정광명→보신→화신. ■양산 정토원 원장

"한국간화선의 현실은 절망도 희망도 아니다. 문제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간화선에 대한 준비단계(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경전어록을 이해하고 공부한 상태)를 거치고 들어간다면 틀림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동화사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근세 보기 드문 대법회다. 불가에서 꼭 짚어야 할 점을 필요한 시기에 토론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호평과 함께 '선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혹평이 엇갈리는 담선대법회였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없다면 담선대법회는 무의미하다. 말꼬리만 쫓으면 혼란할 것이나 의미를 본다면, 간화선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설 것이다."(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간화선 수행법을 놓고 11주간 펼쳐졌던 동화사 담선대법회가 11월 13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펼쳐진 이날 담선대법회 종합토론에는 7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고우(봉화 각화사 선덕)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성본(동국대 선학과 교수), 월암(경주 철불암 주지) 지운(前 송광사 강주) 스님 등이 논사로 참가해 간화선 수행법 전체를 아우르는 열띤 토론으로 논쟁을 진행했다. 이번 마지막 논쟁에서는 간화선 수행법과 화두 참구법, 간화선법과 선수행의 제문제,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문제, 선지식의 부족 문제와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간화선과 제3수행법과의 차이는? 먼저 지환 스님은 간화선 수행이 '화두참구

를 통해 본래 깨달음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힘이 있는 수행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처음 접근은 쉬우나 구경(究竟)에 도달하기 어려운 아바타, 위빠사나 등의 제 3수행법과의 차이를 두었다. 월암 스님은 한국불교를 간경, 염불 등의 수행법을 회통한 통불교적 개념으로 보고, 간화선이 주된 수행법이라면 염불 간경 위빠사나를 보조수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무조건 간화선을 하라기 보다는 보조수행을 통해 화두를 듣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운 스님은 위빠사나, 아바타 등의 제 3수행법을 간화선과 동등히 보자는 안 되며, 불심 하나 들고 바로 들어가는 간화선의 이면에는 재조명해야 하는 엄청난 교리적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간화선 수행에는 근기의 문제가 있는데 간화선을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월암 스님의 제안에 동의했다. 고우 스님은 "나와 너,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의 양면을 초월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교를 막론하고 어떤 불교든 모두 같다. 양면을 넘어면 세계의 전장도 없을 것이다. 이원적인 여의면 세계의 전장도 없을 것이다.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없다는 것만 알고 행위를 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두 참구는 어떻게? 간화선의 화두 참구법에 대해 성본 스님은 "간화선의 본질은 생명문을 진여문으로 바로

되돌리는 것이며 그 방편은 무자 화두 참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무자 화두 외의 화두를 의식하는 것은 본래 불성임을 무시하고 중생심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 모든 스님들로부터 반박을 받았다. 성본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라는 번역은 '있고 없다'의 상대에 떨어지는 잘못된 번역이며, '무'는 '있다 없다'를 초월한 근원적인 무로, 진여불 불심을 자각하는 언어 즉 '법음'이라고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성본 스님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모든 논의단계는 허구이며, 사실이 아니고 진실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바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구절구절 예시를 들어가면서 '<서장> <선요>에 한결같이 의심하라고 적혀있다'며 '화두 참구가 중생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성본 스님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스님은 화두참구를 통해 주관과 객관이 무너져야 무심과 대용이 동시에 일어나 진공묘유에 들어가고, 이것이 달마선 이후 내려온 정통 간화선법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어두운 밤 새기를 뺨으로 알고 여러 조처를 취하나 새기가 뺨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화두참구의 이유는 착각한 사람에게 착각을 깨우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불과 진흙을 빼앗겼다고 착각한 사람이 일깨우기 위해 불과 진흙을 묻히고 들어가 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환 스님도 "깨닫기 전에 어떻게 중생심이 아닌 무념, 무상, 불심을 알 수 있는가"라며 성본 스님의 주장에 반박하고 간화선에서 화두심(부처를 알고자 하는 의심)은 중생심으로 이

것저것을 의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운 스님은 주관과 객관을 해제하는 방법이 화두선이라고 말했다. 월암 스님은 화두선은 간절하게 의심을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를 자신에게 간절히 대들어 들어가는 현성공안(現成公案)밖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화두다'이라고 주장했다. #의심하지 않는 참선이 가장 큰 선병(禪病) 간화선의 선병, 선수행의 제문제에 대해서 지환 스님은 '의심하지 않는 참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병(禪病)'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간절하게 의심을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제대로 기초수행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본원리도 모르고 바로 간화선에 들어가면 경우 선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운 스님은 몸을 구성하는 5대 요소인 흙, 물, 불, 바람, 허공으로 인해 지만과 성냄, 탐욕, 질투, 무지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절과 기도" 등을 통해 몸의 조복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우 스님은 선병 극복의 방안으로 정견을 내세웠다. #돈오돈수나 돈오점수나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서 고우 스님은 '법에는 돈점이 없다'는 <육조단경>의 구절을 강조하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돈오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운 스님은 초지에서 돈오돈수와 불지에서의 돈오돈수는 다른 것이며, 초지의 돈오돈수는 다시 돈오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오는 불성사상을 토대로 봐야 하며 돈(물성)에 수를 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식 부족 대책은? 지환 스님은 선지식 부족에 대해 "초보자가 공부해 나갈 때 꼭 대학원 교수를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며, 자신 내면의 선지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경전어록과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본 스님은 "선병 문제를 진단할 능력이 없고 부처님의 해명으로 바르게 이끌 선지식이 없다면 한국 간화선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운 스님은 선지식 부족 문제에 대해 "선지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검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문답식 강연교육을 통해 선문답을 할 수 있는 토론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월간역학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 손으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궁금한 모든 것!
월간역학 필진 · 월간역학교육원 교수들과 직접 상담하세요. 060)800-2424
이름 통화번호 이름 통화번호 이름 통화번호
이재운주필 02 박일봉원장 09 김옥주원장 18
박인신원장 03 김애영원장 11 최정미원장 19
전충효원장 04 마정만원장 12 전주범원장 21
홍진보원장 05 이정호원장 13 김영순원장 22
신강용원장 06 경태우원장 15 김순영원장 23
백명길원장 07 조성애원장 16 김재현원장 08 김정석원장 17
한 마디로 격이 다릅니다!
월간역학에는 어중이 떠중이 역술인이나 헛소리하는 무당이 없습니다. 역술인들을 교육하는 교수 · 필진 등 학계의 권위자들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시외전화 요금 없이 3분간 무료통화. 이후 30 초당 900 원. 15 분에 1사람 상담하면 2만1천6백 원, 30 분에 3 사람 상담하면 4만 8천 6백 원이므로 역술원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며 정확합니다. 불분선 (02) 2264-0258